

사 설

‘사찰예산회계법’ 통과돼야

그동안 불교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자주 거론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재정구조의 문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명한 재정운영 여부가 그 집단의 흥망과 직결된다는 것은 종교집단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계는 그동안 종단이나 사찰의 수입 지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는 바람에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특히 주요 소임을 맡은 책임자가 공금을 멋대로 남용 또는 횡령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환속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었다.

돈의 흐름이 처음이나 끝이나 청정해야 할 심보정재가 이렇듯 함부로 관리되어 온데는 승가의, 재무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법인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늦은 감이 많지만 이제라도 ‘사찰예산회계법안’이 조계종 정기중앙

총회에서 다루어진다면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의로 사찰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당사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한다고 한다. 백번 당연한 일이다. 또 통장과 인장의 관리책임자를 분리해 관리한다는 대목도 주지의 전횡을 방지하는 데 높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본다.

종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차입금을 추인주지가 인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사찰의 차입금이 주지직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뒤늦었지만 이러한 법안이 지금이라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금횡령사건은 어디서 또 일어나 불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지 못한다. 투명한 재정운영이야말로 기독교의 전횡이나 종단발전을 이루는 중요 요소이다.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우선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조계종 총회는 어떤 이견이나 반론이 없어야 할 것이다.

왜 절을 해야하나

근래들어 절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 늘고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사찰 곳곳에서, 수행단체들 사이에서 절 수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참회를 통해 불심을 다지겠다는 열의가 그만큼 충만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절을 찾았을 때 먼저 부처님께 절로써 인사를 하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있다. 절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쉬운 노력이다. 절을 잘하게 되면 다른 일까지도 성취할 수 있다. 기복이나 상념 없이 절을 하게 되면 산만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악한 마음이 강해지고, 탐욕심·성냄·어리석음이 자연히 사라지며, 아만까지도 없어져 모든 의심이 해소되어 격경과 어려움이 소멸된다.

불자들이 절을 잘하면 그 공덕으로 마음에 숨겨져 있던 거짓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으므로 어떤 일에서든 창의력이 수승하게 된다. 또 마음이 온화하여 훌륭하게 위의를 갖추게 되니 남이 칭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소멸되어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모든 일의 판단력이 분명하여 복덕과 지혜를 갖

추게 된다. 또 쓸데없는 탐욕심이 없어져 성낼 일이 없으므로 얼굴에 밝은 미소가 넘치고 눈이 맑고 귀가 밝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호법신중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일에 장애가 없어 마음이 고요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됨은 물론이다. 절은 한번 하면 한번의 공덕, 10번 하면 10번의 공덕, 백 번, 천 번, 만 번 하면 할수록 많은 공덕을 얻게 된다.

요즈음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사회·경제가 불안하고 가정이 편치 못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고들 한다. 절을 많이 하면 이러한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절을 하게 되면 모든 걱정근심에서 떠나게 되면서 모든 일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내 하나의 욕심보다는 남을 위한 보시로서 인류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보듯이 비로소 나누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난극복과 인류와 자연, 개인과 전 생명공동체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에서든 고요하고 밝은 마음으로 절을 하는 참된 불자가 되자.

“환경보존 불교적 해법찾자”

한·중·일 불교우호회의 북경서 열려

서울 5차회의·한국수행단 방중 합의

제 4차 한·중·일 불교우호회 교류위원회(이하 불교우호회)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회 회의는 21세기에 접어들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불교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행사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 한중일 3국을 비롯하여 홍콩과 마카오 불교계도 참여, 교류를 통한 세계 평화에 적극 나섰는데 의미가 있다.

26일 북경 천룡왕조호텔에서 열린 이번 제4차 불교우호회 회의에서는 △제5차 교류대회 서울 개최 △환경사진전 3국 순회전시 △국제학술강연회 개최 △대회개

최 전 예비회의 상설화 △한국수행단 중국불교체험방문 등을 결의했다.

또 27일 북경 영광사에서는 3국 불교대표와 신도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와 불교환경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합동기원법회에서는 한중일 3개국이 각각의 의식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법회에서 한국 측 단장인 해초스님(태고종총무원장)은 종단협화장 정대 스님의 메시지를 대독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폭력이나 폭력을 지지하고 후회하는 것은 본래의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며 불교인들의 평화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한중일 불교대표단이 불교환경사진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이어 북경 천룡왕조호텔에서 ‘불교와 환경보존’이라는 주제로 양산(조계종 사회부장, 법륜(태고종 총무원장), 도연(천태종 인사과장)스님과 호당정사(진각종 총무원장)등 각국 스님 10여명이 발표하는 ‘한중일 국제학술 강연회’가 열려 환경보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한중일 뿐만 아니라 대만과 홍콩 마카오도 동참해 불교사상으로 인류문재인 환경문제 해결을 모색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범종교계 사형폐지 운동

국회·청와대에 서한 전달

시민단체 연극·포럼등 열려

여야 국회의원의 154명이 10월 30일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전격 제출한데 이어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계도 11월 한 달을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총보기간으로 정해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사형제 폐지 촉구 서한을 보내는 한편 국제 인권단체 및 해외 종교기관과 연대활동을 벌인다.

‘사형제도 폐지 범종교연합’ 등 범종교 시민단체들은 10월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2001 사형폐지 아시아 포럼-서울’, 11월 10시 KBS 여의도홀에서 ‘생명문화정착을 위한 시민 음악회를 잇달아 연다.

하지만 법안이 제출된 10월 30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폐지불가를 밝히는 등 반대론도 만만찮아 사형폐지 법안의 입법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종교·문화·환경 등 각계인사 265명

북한산 관통로 반대 선언

종교·문화·환경 등 각계 인사 265명은 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산 관통로 건설 반대, 우회노선 채택’을 촉구했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 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회견에서 의정 반대론도 만만찮아 사형폐지 법안의 입법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립공원 등을 관통해 건설할 경우 자연생태환경과 종교문화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 340호 2면·341호 23면 기사참조)

이들은 외곽고속도로가 도봉산을 관통할 경우 인근의 사찰 30여개가 철거 대상이 되고 70여개의 부불교사암연합회장 지킴스님 등 대표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북한산국

승가대 안암학사 고시원 재계약

범진유통과 3년 임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정대스님은 1일 총무원에서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임차인 범진유통이 순번 대표와 만나 임대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재계약된 내용에 따르면 고시원 이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못박았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도 승가학원이 건물을 사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2년 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구 수행관 지하 식당은 처

음 계약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개운사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운동장의 경우도 당초 임차인이 관리운영토록 했던 것에서 개운사와 제반사항을 협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편 현재 고시원 내에 위치해 있는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중앙승가대 비구 수행관으로 사용했던 보타사 내 건물로 보육교사교육원이 이전할 시, 범진유통이 교육시설 용도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김영민

기본이 바로서야

외국인 사찰안내 봉사 회원 모집 12월 발대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시 한국불교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칭) ‘외국인대상 사찰안내 자원봉사자 연합 조직(이하 외사연)’이 이달말까지 회원 사찰을 모집한다.

외사연에 가입하려는 사찰은 조계종 등록 사찰로, 자원봉사 활동자 현황 및 활동사항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사연은 사찰 모집이 끝나는 대로 12월 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21일 현재까지 외사연에 가입한 사찰은 조계사, 봉은사, 송광사, 통도사, 불국사, 통도사 부산 포교당, 연동국제불교회관 등 7개 사찰이다.

외사연 준비위원장 선업스님(조계종 국제포교사)은 “지금까지 등록된 회원수가 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더 많은 사찰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중앙신도회 지도자연수

10·11일 수덕사에서

중앙신도회는 10-11일 이틀동안 수덕사 황하루에서 ‘수덕사 마곡사본·말사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대전·충남지역 신도단체 지도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이번 연수회는 ‘생명살림·생태적 삶을 위한 불교적 역할’ ‘불교적 세계관의 확립’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영배스님 이사 재선임

대학 정보지원팀 신설

동국학원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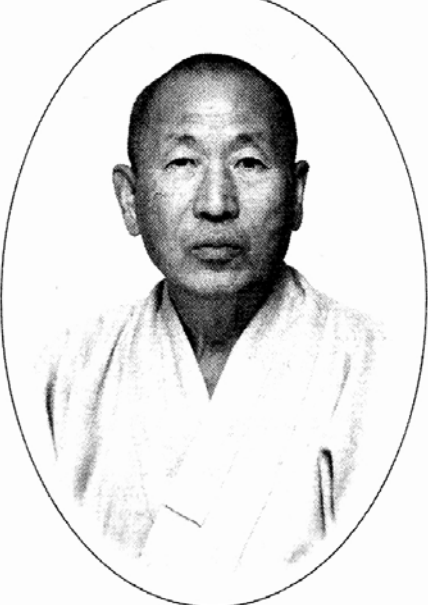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은 10월 29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제179회 이사회를 개최,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영배(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스님을 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대학에 교양교육운영실과 정보지원관리팀을 신설키로 하는 한편 교원 인사제정의 건, 중립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초중고등학교 교육분쟁위원회 정관 개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김종근 기자

奉 보덕선원 밀운대선사 조실 취임 대법회 祝

밀운 큰스님을 모시고 동안거결제에 들어갑니다



밀운대선사

일 시 : 불기 2545년 (2001년) 11월 15일 (음력 10월 1일) 10시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824-1호 삼각산 보덕선원 대법당

문의처 : 보덕선원 02-914-4235

- 교통안내
 - 지하철 : 4호선 성신여대 입구 하차 → 일반버스 (하단) 탑승 종점 하차
 - 일반버스 : 1, 1-1, 3, 5, 5-1, 16, 710 종점 하차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대 각 회 삼각산 보덕선원 선원장 오본 합장

찾아 오시는 길

